

광주·전남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대법 손배 상고심 3건 판결 확정...첫 소송 제기 11년만에 결론 총 21억·자연손해금 배상 결정...광주·전남 피해자 등 원고 41명 일본 시민단체 "환영"...일본 정부, 유감 표명·수용 불가 입장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어 후지코시 사(不二越社)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약)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을 낸 원고는 생존해 있는 광주·전남지역 피

해자를 포함한 8명과 유족으로 총 41명이다. 피해자 기준으로는 23명이고 15명은 이미 별세했다. 판결이 확정돼 피해자 한명당 8000만~1억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후지코시는 총 21억원과 자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후지코시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의 도야마(富山) 공장에 강제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3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고 10여 년만에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23명 중 7명(3명 생존, 4명 사망)이 광주·전남에서 강제로 끌려간 할머니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945년 2월께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위치한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했지만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인 '호쿠리쿠 연락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의 승리를 환영한다"면서 "일본정부와 후지코시는 강제 연행·강제 노동의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런

판결은 지난날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열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에서 미쓰비시측 변호인은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측 대리인은 "미쓰비시가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서 직접 확인했지만 '문서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1세기 샷샷 어때요?" 25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도서관 겨울독서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문화강좌실에서 고전 이야기 속 주인공이 쓰는 샷샷을 직접 만들어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구, 주민참여형 남북 교류 사업 진행

이산가족 문화탐방·광주세계양궁선수권 북한 선수단 초청 등 추진

광주 남구가 주력하고 있는 '2024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윤곽이 잡혔다. 올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모토는 '한반도 평화, 한 걸음 더 가까이'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구성됐다. 남구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남구 주민들과 학생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사업을 한마을 교육과 공감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한마을 교육은 남구 평화 도슨트 교육, 푸른길 이동 통일관, 청년 남북교류 학교, 찾아가는 통일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됐다. 도슨트 교육은 통일강사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강사로 나서 남구지역 초·중학교에서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강의를 펼친다. 또 3월부터 4월까지 광주대학교 상담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학교를 운영한다. 5

월 중에는 남구 평화의 날을 정해 푸른길 공원 광장에서 이동통일관을 마련한다. 통일스튜디오는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감 분야에서는 오는 4월부터 10월 사이 효천역에서 4차례 출발하는 통일열차와 2월부터 11월 까지 매일 1차례 열리는 통일 올레길 걷기를 운영한다. 9월 중에는 일제강제동원의 아픔이 남아있는 광명동굴에서 통일역사탐방을, 남구 지역 15명의 이산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탐방과 평화통일 공감 전시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남구는 구청 상황실에서 '제1차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를 열고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 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및 초청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전문가에게 브런치 요리 배울 기회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서 31일~다음달까지 특강

광주 북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요리 체험 교실을 마련했다. 북구는 이달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겨울 단기 특별강좌'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강좌는 가정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특별한 요리 체험을 통해 겨울철 주민들의 일상에 재미와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나를 위한 브런치 요리'로,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이수자인 임영란 강사가 함께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리며 15만원의 개인부담이 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2024년도 상반기 남도전통음식강좌와 식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수강생은 이달 31일부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교육청,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운영

3월부터 피·가해 사실 조사...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도

광주교육청은 25일 학교 폭력에 대응하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와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제도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해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한다. 센터에는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50여명이 배치된다.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가해 사실을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등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경찰이나 청소년 선도 및 보호·상담 활동을 가진 경력자를 위촉한다. 이정은 광주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내 구성원 간 관계 회복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센터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학교 적응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